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가구디자인 특성 비교 연구

A Study on Comparing Characteristics of Frank Lloyd Wright's Furniture Design with Charles Rennie Mackintosh

Author 하숙녕 Ha, Sook-Nyung / 정희원, 상명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겸임교수
한영호 Han, Young-Ho / 명예회장, 상명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교수*

Abstract There is a commonality between Frank Lloyd Wright and Charles Rennie Mackintosh in that they created the new patterns of geometric Art Nouveau from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This study compares the furniture of Wright and Mackintosh who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design for each of the periods divided by their design feature to find the individualities and similarities of their design. It is an analytical approach with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design trends of the Art Nouveau era. The results of the furniture comparison are as follows: The finding is that Wright and Mackintosh designed creative furniture in harmony with a specific indoor space. Organic design was well expressed through the selection and use of wooden material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ree characteristics, they did not use detailed decorations, but designed the simple and rigorous forms of furniture with highlighted interest in geometry. As for shape, Wright's furniture in his early days tend to be look largely formal and heavy. Since his debut in Japan in 1905, the furniture design became very sophisticated. On the other hand, Mackintosh's chairs are characterized by plenty of geometric patterns and long back. In many cases, his chairs were designed as part of formative elements in space, not for the purpose of furniture itself. As for materials and colors, Wright used mainly cherry wood. And he also utilized metals colored in olive green, red-brown and others for office furniture. The frames, fabrics and leather used for most of the furniture have natural colors, which are harmonious with spaces. Meantime, Mackintosh used primarily oak and ash trees. He used seat cushions and various colors to make the design of furniture have a sophisticated and simple image. The materials used for seat panel are horsehair, rush, silk and leather. He applied these materials to the furniture by weaving or cutting them.

Keywords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찰스 레니 맥킨토시, 가구디자인, 기하학적 아르누보, 유기적 디자인
Frank Lloyd Wright, Charles Rennie Mackintosh, Furniture Design, Geometric Art Nouveau, Organic desig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어난 아르누보는 이전의 자연의 동적이고 역동적인 모티브를 이용한 곡선적인 아르누보의 양식에서 벗어나 직선과 직각을 이용하고 기하학적 명쾌성을 추구한 새로운 후기 아르누보가 발전한 시기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기 아르누보 시대의 나타난 기하학적

아르누보의 양식과 그 시대의 대표적 인물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찰스 레니 맥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의 가구디자인, 특히 의자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후기 아르누보 시대의 가구에서 나타나는 두 사람의 디자인 양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사상과 가치관에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따른 두 사람의 활동, 양식, 디자인에 대한 철학 등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맥킨토시가 활동했던 19세기 후반은 사조적으로 후기 아르누보 양식이 유행한 시기였으며, 이 양식은 고전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yhhan@smu.ac.kr

의에 심취하였던 역사주의¹⁾와 기계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한 모더니즘 운동의 출현 사이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더니즘 디자인으로 발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의 가구들을 시기별로 분석한 후 디자인상의 유사성과 개별성을 알아봄으로써 아르누보시대의 디자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하는데 의의가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형성된 후기 아르누보의 시대로 정한다. 방법에 있어서는 동시대에 나타난 사상과 특징을 알아본 후, 가구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특징에 미친 영향들을 도출한다. 그리고 나아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가구디자인에 담겨있는 그들의 디자인사상과 특징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아르누보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유기적인 디자인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디자인 사상과 추구하고자 했던 그들의 작품세계를 기준의 문헌들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르누보 사상에 비추어진 그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중심으로 가구디자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아르누보 시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아르누보 시대의 배경

아르누보는 19세기 말 벨기에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에 퍼진 낭만주의적 예술운동이다. 188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전위 예술가들이 잡지 ‘근대예술(L'Art Modern)’을 발간하였는데, 그들은 예술의 전통주의와 절충주의를 반박하고 ‘예술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예술가의 주관성과 창작력에 의한 새로운 예술양식의 창조를 주도하였다. 이를 계기로 주관적이고 낭만적인 예술사조가 회화, 공예, 건축 등에서 활발히 전개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양식의 전개와 더불어 사람들은 산업혁명과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기능제일주의와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이 깨어지고 인간의 가치관이 개별화·개인화를 중요시 여기는 민주주의와 평등사상으로 이어졌으며, 새로운 매개체로써의 대중문화는 우리의 가치관적 환경을 준 기존의 양식의 변화나 기존 도덕을 변모시

키는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르누보는 규격화된 대량생산과 함께 개별적 특성을 중요시하는 소량생산까지 반영하는 다양한 디자인의 모더니즘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일조하였다.

아르누보를 전후기로 나누어 볼 때, 전기의 아르누보는 곡선적이면서 장식적인 요소들이 많았으나, 후기의 아르누보는 직선적이며 기하학적인 새로운 양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2.2. 아르누보와 유기주의 디자인

(1) 아르누보

아르누보의 전성기는 1895년경부터 약 10년간이다. 아르누보는 과거의 고딕, 바로크, 로코코와 같은 양식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고딕은 아르누보의 이론에 영향을, 바로크는 형태에서 조형적 개념에 영향을, 로코코는 비대칭 원리에서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초기 전기 아르누보는 창작의 새로운 모티브를 자연적 성장과 자연에서의 움직임, 물의 움직임, 식물의 형태 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특히, 넝쿨풀이나 담쟁이 등 식물의 형태를 연상하게 하는 유연하고 유동적인 선과 무늬, 형태 등 특이한 장식성을 자랑했고, 유기적이고 움직임이 있는 모티브를 즐겨 좌우대칭이나 직선적 구성을 고의로 피했다. 그리하여 디자인은 곡선·곡면의 집적에 의한 유동적인 미를 낳는 반면 견고한 구축성이라든가 기능에 기초를 둔 합리성이 소홀하여 기능을 무시한 형식주의적이고 탐미적인 장식으로 점점 빠져들었다. 전기 아르누보가 비교적 단명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1862년 런던 산업제품 전시회(The Exhibition of the Work of Industries)를 통해 선보인 일본 미술양식은 유럽인들에게는 동양세계에 대한 신비스러움을 제공하였고, 대중의 관심에 부응하면서 1867년과 1873년의 파리나 비엔나박람회 등 꾸준히 유럽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아르누보는 이러한 일본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동양가구의 구조인 단순하게 분절되고 매우 가볍게 보이는 직각적인 형태로서 유럽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재료와 방법으로 모방하도록 자극하였다.

1910년경부터 건축·디자인계에는 기능과 사회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풍조가 강해지면서 자연에서 출발한 창작이념은 구조적 형태나 가구, 내부배색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독창적 법칙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구조와 장식을 보다 밀접하게 결합시키고자 건축,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에 적용되는 오브제를 새로운 의미 있는 구성요소로 간주하여 매우 광범위한 스펙트럼으로 확대하였다²⁾

1) 역사주의는 19세기 후반부터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역사철학의 한 조류로서 과거 미술의 부흥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치스럽고 환상적 이었으며, 심지어 폐락적이기까지 한 곡선적 과잉장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시대의 기능주의의 전통이 정착되는 과정적 현상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후기 아르누보시대의 디자인 특징과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예술양식을 추구하면서 예술에 있어서 전통과 역사적 절충주의를 거부함으로써 과거의 전통양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예술가 개인의 주관성과 창의력에 의한 자유로운 예술을 추구하게 되었다.

둘째, 기하학적 형태와 직선, 혹은 각이 진 선에 대한 의미 있는 구조와 장식을 찾아 디자인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대량생산제가 본격화되면서 모든 물건의 미학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기술과 제품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합리적 형태로서 제품의 질적 수준을 창조하도록 하였다.³⁾

(2) 유기주의 디자인

통상적인 의미의 유기주의적(Organism) 디자인은 건축이나 조각, 회화, 디자인 등에서 유기적인 생명감을 증시하는 경향의 곡선을 이용한 양식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기하학적 아르누보의 디자인은 형태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동일한 형태를 반복해서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직선과 사선, 원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를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미술평론가이자 사회개혁자인 러스킨(John Ruskin)은 그의 최초 저서인 ‘건축의 칠등(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 1849)’의 내용 중 ‘미의 장’에서 “아름다움이란 자연에 대한 유기적 이해로부터만 오직 유도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것도 아름다움은 아니다.”라고 미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생의 장’에서는 “건축은 생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진보와 변화의 표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러스킨은 고딕건축이 유기적 성장과 무한한 변형의 살아있는 건축임을 강조하면서 고딕의 건축을 생명의 표상인 불완전성을 의미하며 생명성의 변화와 진보, 자연에 대한 태도를 역시 강조하였다.

이후 미술과 공예운동(Art and Craft Movement)의 창시자인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는 유기적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진실한 정신에서 형태를 발전시킨 기능, 재료 등 조건에 적합한 새로운 건축을 위해 자연에서 디자인원리를 추출해 내자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러스킨과 모리스에 의해 유기적 건축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적 건축은 단지 장식이나 형태의 표현에 머물렀고 이후 나타난 후기 기하학적 아르누보 디자인은 완전한 통합체로서의 건축으로 성장하는데,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건축가의 개성적 표현의 반영으로 그 성격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발전하였다.⁴⁾

2) Penny Spark, 디자인의 역사: 20세기의 디자인 선구자들, 김난령 역, 예경, 2004, p.11

3)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95, pp.138~142

3.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사상과 가구디자인 전개

3.1.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사상과 가구디자인 전개

(1)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1867~1959)⁵⁾의 사상

라이트는 “유기적 건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 속에서 하나의 생명체처럼 성장 변화해 가고, 내부와 외부가 연계성을 갖게 되며, 모든 것이 자연에서 연유되어 결국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인간이 함께 어울려야 한다”⁶⁾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자연-나무와 꽃, 절벽과 표면이 그대로 드러난 암석 등-그 자체의 문양이나 재료를 좋아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정말로 관계하고자 하였던 것은 자연의 내재된 원리였음을 알 수 있다.⁷⁾ 또한 그는 반유물론을 내세우며 이러한 자연에 대한 직관은 자연의 자태에서 형상화된 구조의 시스템을 비롯하여 형태, 내부와 외부공간의 관입, 수직과 수평의 상호 연관 관계 및 연속과 확장, 반복 및 대립의 관계로 이어져 각각의 개체가 결합되면서 일체로 표현되는 유기적 건축의 맥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의 건축을 유기적인 건축이라고 서술하면서도 건물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특히 가구는 별개의 형태이지만 건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하였다.⁸⁾ 결국, 라이트는 유기적인 디자인은 자연과 유기체에 대한 디자인 요소의 반영과 건축, 가구, 공간이 통합된 개념이라고 강조하면서 그의 가구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의 스승 루이스 설리반(Louis H. Sullivan)은 신건축을 유기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라이트는 설리반의 이러한 사상을 기능주의적이 아닌 유기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발전시켰고, 결국, 라이트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으로 완성하였다. 이것은 그가 반 고전적, 반 유럽적 접근방법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문화적 독립성을 암시하는 사인인 유기적 관념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이트는 미국의 신개척(New Frontier)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한 민주적 디자인(Democratic Design),

4) 문은미, 유기적 건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6, pp.18~22

5)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1867~1959)는 미국 워스콘신 주 출신으로 1887년 근대건축의 선구자 루이스 설리반의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하여 1893년 원술로 저택을 비롯한 주택건축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유기적 건축 사상의 철학적 배경이 된 프뢰벨사상과 도가사상을 결합시킴으로써 독창적인 작품들을 창조하였고, 대표작품으로는 로비주택, 라킨빌딩, 제국호텔, 낙수장, 구겐하임 미술관 등이 있다.

6) Donald Hoffmann, Frank Lloyd Wright-Architecture and Nature, Dover Publications, 1986, p.43

7) 김혜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이상도시론이 반영된 ‘커뮤니티 시 설’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1, p.32

8) The International Design Yearbook, BSS, 1989, p.202

그리고 언제나 본인의 건축과 실내의 요소들을 총괄하는 토탈디자인(Total Design)의 개념을 관철한 건축가이기도 하다.

그는 유기적 건축사상의 철학적 배경으로서의 상보적 역할을 한 서양의 프뢰벨사상과 동양의 도가사상을 접목시켰다.

프뢰벨 사상은 단순 기하학적 형식의 모든 자연적인 형태로써 기초적 수준에서 볼 때 단순 기하학적 단위의 집합체이다. 이러한 기하학적 체계는 3차원적 Solid와 Void에 대한 감각을 보여주었으며, 복잡한 2차원 패턴과 3차원 공간을 “엮어내는 것”에 대한 그의 디자인 특성을 잘 나타내었다. 또한 2차원 제도판 위에 그린 패턴의 3차원적 관계를 시각화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철학적 배경이 되었다.

라이트에게 영향을 준 도가사상은 1850년대 제임스 휘슬러(james Whistler)가 처음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을 발전하여 목판화를 비롯한 일본풍의 여러 대상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목판화의 다양한 특징들은 라이트의 특유의 표현기법으로 나타났다. 일본풍 목판화는 화가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보수적 특징을 가진 건축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⁹⁾

결국, 라이트는 유기적 디자인의 사상적 영향에 있어서 디자인이란 자연과 재료에 내제한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낭만주의적 프뢰벨 사상, 그리고 노자의 도가사상을 기본으로 한 철학적 영향으로서의 상보적 역할의 동·서양을 결합·창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라이트는 그 같은 사상들을 모두 자신의 유기적 사상의 근원이라고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 유기적이란 용어는 라이트 사상의 핵이며 디자인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2)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가구디자인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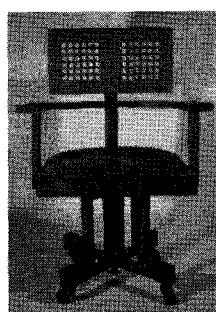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기적 건축에서 나타난 단순한 구조의 설계방법이 가구에서도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는데 주로 직선과 기하학적인 형태의 현대적 요소와 아르누보의 직선주의적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그가 디자인했던 가구는 모두 유기적 건축개념의 일부였으며, 1890년에서 1950년대에 지어진 그의 주택 안에 있는 가구는 모두 함께 디자인되었다.

라이트는 그의 자서전에서 “가구는 건물의 중요한 부분으로 건물과 같은 의도로 디자인되어야 하며 그 가구가 따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본래 사용되기로 되어 있는 건물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The Natural House」에서는 “모든 의자는 그것이 사용될 건물에 맞게 디자인되어야 하며 유기적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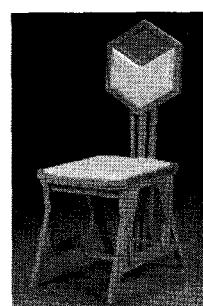
축은 이와 같이 의자가 하나의 가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환경인 건물 자체에 도움이 되는 부속품인 것처럼 보일 것을 요구한다.”¹⁰⁾라고 하였다.

라이트가 디자인한 가구를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1889년에서 1910년을 초기, 1911년에서 1930년까지를 중기, 그리고 1930년에서 1959년을 후기로 나눌 수 있다.¹¹⁾ 초기의 가구가 수평, 수직의 유기적 디자인을 성향을 띠고 있다면, 그가 일본에서 활동했던 1905년 이후의 중기에는 보다 가볍고 세련된 이미지의 기하학적 조형미와 큐비즘을 느끼게 하는 가구들이 대부분이다.

라이트의 초기 작품들은 단순한 목재 구조물로서 직선이나 상자모양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와 함께 내부공간을 창조하는 가구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보통 의자 등 판과 같은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가구디자인 분야에서 라이트가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작품으로는 아마도 1904년 뉴욕의 베팔로에 있는 ‘라킨 빌딩(Larkin Administration Building)’에 디자인한 철제 책상과 의자일 것이다. 이 제품은 최초로 실내용으로 제작된 금속가



<그림 1> Swivel armchair
(1904)



<그림 2> Peacock의자
(1922)

구로서, 형태면에서 목재가구를 흉내 내지는 않았다. 채색한 강철을 프레임으로 사용했고, 가죽으로 좌석을 씌우고 의자다리에 회전의자의 철제 바퀴를 부착했으며, 등판에는 사각형으로 구멍을 내어 기하학적 느낌을 더 하였다. 이후, 라이트는 라킨 빌딩뿐만 아니라

‘존슨 왁스(Johnson Wax)’사의 사무용 가구들 또한 완전히 통합된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함으로서 오피스시스템 가구를 한 단계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고 장소의 특수성을 심어 주었다. 그가 초기에 디자인한 의자들은 자연주의에 입각한 수평, 수직의 기하학적인 형태가 대부분이었지만, 1909년에서 1935년까지 제작된 가구디자인에서는 그의 독특한 장식적 특징인 기하학적 조형미와 큐비즘이 드러난 가구의 발전된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의자의 등받이, 좌석, 측면 부분의 6각형이 변화된 형태의 제국주의 호텔의 의자는 편리성과 실용성을 겸한 기하학의 유기적 디자인으로 잘 표현하였다. 그밖에도 라이트는 의자 이외에도 유리제품, 도자기, 금속제품, 그

9) 신승기, Frank Lloyd Wright의 건축에 나타난 일본풍의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논문집*, 1999, pp.28~31

10) 배소현, 현대 건축가가 디자인한 가구에 나타난 모더니즘 미학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논문집*, 1996, pp.52~53

11) 백은 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과 가구디자인의 유기성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2009, pp.155

리고 직물까지도 디자인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디자인하였다.

3.2.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사상과 가구디자인 전개

(1) 찰스 레니 맥킨토시(1868~1928)¹²⁾의 사상

맥킨토시가 활동했던 19세기 후반은 아르누보 양식이 유행한 시기였다. 따라서 맥킨토시의 초기 작품들은 이미 1890년에 유럽의 고딕 양식과 미술과 공예운동, 아르누보는 거의 동시대적으로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기 때문에 대륙 문화와 미술과 공예운동 등에 영향을 받았음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곡선위주, 즉 장식적인 양식만을 주장하는 아르누보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시대를 앞선 디자인적인 사고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그는 직선적인 경향과 단순한 스타일의 양식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맥킨토시는 퓨진(Pugin)과 러스킨(Ruskin)의 저술과 레더비(W. R. Lethaby)의 저서 「건축 신비주의와 신화(Architecture Mysticism and Myth, 1891)」에 나타난 수공예와 상징주의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심오하게 영향을 받았다. 러스킨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였으며 그의 견고한 사고성과 구조적인 논리 특성을 선적인 감수성과 결합한 심미적인 것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건축적인 구조의 흐름에서도 잘 보여졌다. 그의 건축적 요소는 실내와 가구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으며, 초기 디자인이 미술과 공예운동의 원칙에 열중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맥킨토시의 작품은 역사주의와 자연의 형태 등에 영향을 받았으나, 대륙의 아르누보 양식과는 대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맥킨토시만의 아르누보, 즉 절제된 곡선과 직선의 사용으로 유럽의 곡선적이고 과잉 장식적인 아르누보 양식으로부터 직선적인 디자인으로 발전하는데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글래스고우 예술학교의 실내와 벽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온화한 곡선과 선형장식이 있는 직선의 구현에 기초한 형태의 새로운 양식으로 장식하였다.

이와 같이 맥킨토시는 폭넓은 독자성을 지닌 양식을 만들어 냈고 미적 생활의 이상을 계승하면서 건전하고 간결한 장식성과 명쾌한 구성 원리를 가미한 일련의 작품을 디자인하였다.

맥킨토시의 또 다른 사상적인 요인 중 하나는 미술과 공예운동이다. 미술과 공예운동의 특징은 첫째, 일상생활

용품의 예술적 잠재성 강조와 둘째, 높은 수준의 공예기술 적용, 셋째, 형태 창조에 있어 기능의 중요성이다.¹³⁾ 그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원칙은 기꺼이 수용하였으나, 두 번째 원칙인 공예기술은 많은 시간과 노력, 재료가 필요하여 소수의 부유층에서만 공유한다는 것과 옛 구조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맥킨토시의 의자에서는 동양건축의 격자문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은 그의 전성기에 집중적으로 보여졌고 그의 작품 중 '힐하우스의 의자'는 직선적이며 면이 분절된 가구로서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이와 같이 맥킨토시는 직선적인 구조에 격자문양을 더하여 새로운 맛을 주면서 이것을 새로운 공간으로 해석하였다.

이상을 정리해 볼 때, 맥킨토시는 대륙의 아르누보 양식과 일본의 직선적 요소를 결합시키고 미술과 공예 운동을 발전시킴으로써 독창적인 아르누보 스타일을 창조하였고, 근대디자인 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가구디자인 전개

19세기 중반 서구 미술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준 일본미술은 맥킨토시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일본미술의 기하학적 디자인의 형태는 삼각형, 사각형, 격자무늬나 체크무늬, 줄무늬 등의 건축적 성격의 모티브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기하학적인 형태는 맥킨토시의 조형적인 요소로 적용되었다. 동일한 공간 속에 분절된 사각형의 모양이나 직각적인 구조의 특징을 살려 실내 구조에 적합하게 위치되어지게 제작되었고, 전체적인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대부분의 맥킨토시의 실내디자인 안에는 수직적이고 간소한 형태의 특징으로 그의 작품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일본의 영향은 그의 고유한 양식적 특징과 조화를 이뤄 이 시기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 이때 디자인사적으로도 유명한 '아가일', '월로우', '힐 하우스' 의자가 디자인되었다.

맥킨토시는 공간 안에는 다양한 스케일이 존재하며 사용된 어떠한 것도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스케일을 보여준 그의 가구디자인의 특징은 곡선만을 구사하는 새로운 모방에서 벗어나 기하학과 직각의 기능적 형태까지 표출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함으로써 아르누보와 모더니즘을 더불어 조화를 이루었고, 가구를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실내공간과의 조화를 중요한 의미로서 부여하였다.

개최된 국제박람회에 출품되어 완전한 성공을 거둠으로서 20세기 새로운 운동의 모태를 제공하였다.

맥킨토시의 가구를 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1884년에서

12) 찰스 레니 맥킨토시(1868~1928)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 출신으로 영국의 근대 건축 운동의 하나인 글래스고우 학파의 대표적인 건축가이다. 대륙의 아르누보와 일본의 직선적인 요소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양식을 추구하였다. 대표작품으로는 글래스고우(Glasgow) 미술학교, 힐 하우스(Hill House), 윈디 힐(Windyhill) 저택 등이 있다.

13) 류숙희, 맥킨토시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대석사논문, 1995, p.13

1896년까지를 초기와 그의 전성기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즉 1897년부터 1909년 동안의 전기, 그리고 1910년에서 1916년 사이의 후기로 나눌 수 있다.¹⁴⁾

맥킨토시의 전기 디자인은 직선과 많은 장식이 엄격히 한정되며 간소한 형태인 구조적 요소로 사용되었다. 특히 의자는 굉장히 높은 등받이와 타원형, 사각형, 그리고 초승달 모양의 구멍을 뚫어 놓은 것으로 그의 또 다른

독창성을 보여주며, 글래스고우학파의 상징적 특성을 보여준다. 가구는 실내공간 속에서 오브제적으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 그 형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과 이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의자는 완전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 중 1903년에 디자인된 힐 하우스(Hill House)의 화이트 베드룸(White Bed Room)에 있는 높은 등받이 의자(Ladder back chair)는 분절된 사각형의 모티브가 쓰였으며 이러한 가치와 의미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답답하게 막혀있던 가구의 뒷면이나 의자의 등받이가 분절된 사각형을 통하여 보이는 반대편의 공간은 빛이 이 공간을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공간감에 중점을 둔 것이고 동양 건축에서 보이는 '자연채광'의 개념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해석과 격자무늬를 이용한 직선적이고 생산적인 디자인은 현대가구의 초석이 되었으며 공간 미학의 심미성을 극대화시키기도 하였다. 동시대의 비평가 애흘러 헤스터만(Ahler Hesterman)이 맥킨토시의 작품에 대해 간략히 평가하기를 그가 제작한 가구들의 집결된 모습은 공간을 쓸모 있고 간소한 형태로 색다르게 혼합되어 있다고

하며 환상적인 공간이라고 하였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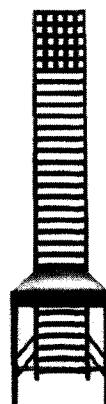
맥킨토시가 보여준 엄격하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은 단순히 표면적인 유사성이 아닌 그 수법과 통념, 그리고 내면적인 정감까지 깊이 이해하여 그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발전시켜 20세기 초기에 전개되는 아르데코와 바우하우스를 거쳐 종주국으로는 '보더니즘 디자인'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3.3. 라이트와 맥킨토시의 사상과 가구디자인 전개 비교

앞에서 살펴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사상과 가구디자인의 내용을 <표 1>과 같이



<그림 3>
잉그램 의자
(1900)



<그림 4>
레더백 의자
(1903)

정리하였다.

<표 1> 라이트와 맥킨토시의 디자인사상과 가구디자인의 전개 비교

	디자인사상	가구디자인의 전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유기적 디자인 -자연과 재료에 내재한 원리를 그대로 사용함	자연과 유기체에 대한 디자인요소의 반영과 건축, 가구, 공간이 통합된 개념의 디자인을 추구함 자연주의에 입각한 수평, 수직의 기하학적인 형태 표현
찰스 레니 맥킨토시	낭만주의적 프뢰벨 사상 -기하학적 조형과 큐비즘	프뢰벨 입방체와 구분할 구성(Nine-Squarish Composition)의 원리를 디자인에 적용함 가구의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로 발전
	노자의 도가사상 -일본의 예술과 동양철학이 라이트의 작품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지함	일본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건축을 유기적인 것으로 보고 단순함이 그들의 핵심이라고 생각함
	새로운 대륙의 아르누보 양식 -일본의 직선적 요소를 결합시키고 미술 공예 운동을 거부함으로써 독창적인 아르누보 스타일을 창조함.	역사주의와 자연의 형태, 일본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나 절제된 극선과 직선의 사용으로 새로운 양식을 디자인 함 동양가구의 단순하게 분절되고 매우 가볍게 보이는 형태와 동양 건축에서 보이는 '자연 채광'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구의 공간 미학적 심미성을 추구함

동 시대를 대표하고 아르누보의 새로운 디자인 양식을 제공한 라이트와 맥킨토시의 디자인적 중심 사상을 비교해 보면, 라이트는 자연과 재료에 내재한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기적 디자인의 사상을 내세우며 동·서양의 철학을 상호 결합함으로서 자연과 유기체에 대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건축, 가구, 공간의 통합된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반면, 맥킨토시는 미술과 공예운동과 전기 아르누보 성격을 지니면서도 대륙의 아르누보와 일본의 직선적 요소를 결합시킨 모더니즘적 경향을 띠는 새로운 기하학적 아르누보 양식으로서 공간과 가구사이의 조형성과 조화로움을 추구하였다. 즉, 공통적으로는 유기적인 자연의 재료와 형태를 사용하여 기하학적 디자인으로 추구하였으나, 라이트는 사상적 관점에서 기하학 형태를 완성하였고, 맥킨토시는 대륙적 양식을 적용, 발전시킨 부분이 상반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4.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대표적 가구디자인 특성 비교

본 연구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디자인적 사상과 그들의 가구 특성에 대해 비교 분석 하자 한다. 분석 대상의 작품은 라이트와 맥킨토시의 대표적인 가구-특히 의자-를 각각 4개씩 선정하였고, 가구디자인의 특성 분석은 먼저 전반적인 디자인의 개요를 설명한 후,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형태, 크기, 재료 및 색상으로 자세히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4.1.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대표적 가구디자인 특성

자연에서 추출된 라이트의 디자인 모티브는 가장 원초

14) 류숙희, Op. Cit., pp.21~35

15) 류숙희, Op. Cit., pp.21~22

적인 개념으로 읽을 수 있으며, 자연의 모습에서 형상화된 구조의 시스템을 완벽한 구조를 가진 형태물로 만들기 위해 유기적 디자인의 맥을 이어갔다.

라이트의 가구는 정교하게 계획된 재료의 사용과 단순한 형태가 많았고, 기하학적인 직선과 곡선을 사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의자를 디자인하였다.

<표 2> 바렐, 로비 하우스, 쿤리 하우스, 존슨 왁스 의자디자인 분석

작품명(연도)	작품내용 및 분석	
	디자인 개요	디자인 특성
바렐 의자 barell Chair (1904~1905)	라킨사의 다원마틴(Darwin D. Martin)의 저택을 위해 디자인한 원통(barrel)안락의자 이 의자를 기점으로 기하학적 조형미와 큐비즘의 형태로 발전함	<p>형태</p> <p>강한 직선으로 인해 라이트가 추구하고자했던 기하학적 유기적 디자인의 초기 가구디자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음. ① 등받이 부분이 휘어짐으로써 안락함을 줌 -좌판: 원형 -다리: 사각/반원판자 형태</p> <p>크기</p> <p>1.넓이: 21.5inch(약545mm) 2.깊이: 21.9inch(약555mm) 3.높이: 31.9inch(약810mm) 4.좌판높이: 19.7inch(약500mm)</p> <p>재료 및 색상</p> <p>프레임: 벚나무 좌판: 폴리에스터 품 위 적갈색 천 커버링</p>
쿤리 하우스 의자 Coonley House Chair(1907~0908)	수직의 직선이 강한 디자인으로서 무겁거나 둔탁해 보이지 않으며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줌 일본의 유기적 건축의 단순함을 보여줌	<p>형태</p> <p>직선의 기하학적 형태 수직의 긴 등받이 등받이 맨 위 가로대 부분과 맨 아래 다리 4 곳을 살짝 구부려 부드럽게 표현함 -좌판: 사각형 -다리: 사각형태</p> <p>크기</p> <p>1.넓이: 16.9inch(약430mm) 2.깊이: 18.5inch(약470mm) 3.높이: 37inch(약940mm) 4.좌판높이: 18.1inch(약460mm)</p> <p>재료 및 색상</p> <p>프레임: 벚나무 좌판: 폴리에스터 품 위 아이보리색 가죽 커버링</p>
로비 의자 Robie Chair(1909)	로비하우스 2층에 위치한 다이닝룸 내식탁용 의자 긴 수평형의 개방된 긴 공간에 수직이 강한 형태의 가구를 디자인하여 국적인 대비효과를 줌 건축과 실내와 형태적 재료적 유기성 표현	<p>형태</p> <p>직선의 기하학적 형태 사각의 긴 수직 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연결된 등받이 부분 등받이가 수직으로 다리 부분까지 내려온 형태 -좌판: 사각형 -다리: 사각형태</p> <p>크기</p> <p>1.넓이: 15.7inch(약400mm) 2.깊이: 18inch(약455mm) 3.높이: 52.7inch(약1335mm) 4.좌판높이: 18.5inch(약460mm)</p> <p>재료 및 색상</p> <p>프레임: 벚나무 좌판: 폴리에스터 품 위 적갈색 천 커버링</p>
존슨왁스 의자 Johnson Wax Chair(1936)	오피스와 가구가 완전히 통합된 프로젝트로서 오피스 시스템가구를 한 단계 옮려놓는 계기가 됨 장소의 특수성을 심어 줌 아울러 사무용 가구 디자인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함	<p>형태</p> <p>곡선과 직선의 기하학적 형태 원형의 좌판과 등 부분이 반복되어 통일감을 줌 다리에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동이 편함 -좌판: 원형 -다리: 곡선형태</p> <p>크기</p> <p>1.넓이: 24inch(약610mm) 2.깊이: 21.3inch(약540mm) 3.높이: 34.7inch(약880mm) 4.좌판높이: 18.2inch(약460mm)</p> <p>재료 및 색상</p> <p>프레임: 금속 위 적갈색 도장 좌판: 폴리에스터 품 위 적갈색 천 커버링</p>

바렐 의자(Barell Chair)는 1905년에 제작되었으며, 그의 초기를 대표하는 가구이기도 하다. 다소 무거워 보이기는 하나 그의 주택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된 유기적인 디자인의 대표적인 가구로서, 이용함에 있어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등받이 부분을 구부려 주었다. 이 의자를 기점으로 기하학적 조형미와 큐비즘의 세련된 형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08년에 제작된 쿤리 하우스 의자(Coonley House Chair)와 1909년에 제작된 로비하우스(Robie House)는 라이트가 1905년 일본에 진출한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색을 느낄 수 있는 강한 직선의 의자로써 수직의 등받이가 높은 의자를 배치함으로서 형태미의 효과를 주었다. 의자의 형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으나, 수평의 공간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본다면 매우 강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의자라고 할 수 있다.

존슨왁스 의자(Johnson Wax Chair)는 1936년에 제작된 오피스용 의자로서 오피스 시스템 가구를 한 단계 옮려놓은 계기를 마련한 가구이다. 빌딩 내 큰 원형의 기둥과 곡선의 기하학적 형태의 가구가 통합되어 조화를 이루어 계획되었다.

4.2.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대표적 가구디자인 특성

그의 초기(1884~1896) 가구의 특징은 직선적인 대륙의 영향과 곡선형의 절묘한 종합에 있다고 본다면, 전성기의 전기(1897~1909) 가구에는 곡선을 자체하고 기하학적인 직선의 교차에 의한 엄격하고 세련된 형태로 조화를 이룬다. 다시 말해 그의 전기 가구는 대담한 수직 구조를 강조한 수직형 의자, 수평의 선을 강조한 수평형 의자, 그리고 수직과 수평을 직교하여 결합한 격자무늬 의자로 발전하였다.

맥킨토시는 역사주의와 미술과 공예운동의 사상을 배경으로 일본의 기하학적 패턴을 통해 직선적이고 단순한 스타일의 기하학적인 아르누보를 각각 디자인하였다.

아가일 의자(Argyle Chair)는 1897년 제작되었으며, 1900년 빈 분리파 전시회에 출품하면서 널리 알려졌고, 20세 초, 유럽디자인 발전에 근대화를 시작한 기점이 되었던 의자이다.

글래스고우의 아가일에 있는 클랜스턴양의 찻집 중앙테이블용 의자로 디자인되었으며, 지금은 글래스고우의 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기하학적이지만 최상부의 타원형의 모양은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맥킨토시의 의자들 중 대표적인 수직형 의자로 알려져 있다. 이 후 아가일 의자는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16) Penny Spark, Op. Cit., pp.24~25

<표 3> 아가일, 레더 백, 월로우, 바셋 로크 의자디자인 분석

작품명(연도)/사진	찰스 레니 맥킨토시	
	디자인 개요	
아가일 의자 (Argyle Side Chair), 1897	강한 문화적 전통의 뿌리가 남아있던 시기에 근대화를 시작하는 기점이 되었던 의자임 아기일기와의 다리를 위해 디자인 됨	형태 -타원과 수직의 기하학적 형태. -넓게 쪼개진 높은 등받이와 타원형 머리 받침대: 양식화된 상징적인 이미지로서 마치 옥좌처럼 보임 -등받이의 사각 틀에 2개의 패널을 세로 선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하게 동일한 간격으로 끼워 넣는 방식 -좌판: 사각형 -다리: 곡선형태
레더백 의자 (Ladder-back Chair), 1903	-대 표적 수직형 의자로서 수직적 상승미와 간결미를 자아냄	크기 1.넓이: 19inch(약480mm) 2.깊이: 18inch(약470mm) 3.높이: 53.5inch(약136mm) 4.좌판높이: 17.5inch(약450mm)
월로우 의자 (Willow Chair), 1904	20세기 초 실내 공간에서 오브제의 의미를 부여한 최초의 의자 일본문화의 강한 영향을 받은 작품 힐 사이드 의자라고도 하며, 맥킨토시를 대표하는 의자로서 기하학적인 구조와 강한 색채가 남성적 이미지를 느끼게 함 이 후, 1904년에 힐 사이드 1, 2, 3로 발전함	형태 -직선적이며 면이 분절된 가구. 등받이 가로대의 연속된 선들의 반복이 리듬감을 줌 -수직적인 형태가 강한 의자로서 시각적인 기능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능적인 의자로 말하기는 어려움 -좌판: 사다리꼴 -다리: 직각형태 크기 1.넓이: 16inch(약400 mm) 2.깊이: 15.3inch(약380mm) 3.높이: 55.5inch(약1390mm) 4.좌판높이: 17.7inch(약445mm)
바셋 로크 의자 (Basset Lowke Chair) 1918	맥킨토시의 가장 인상적이고 독특한 디자인 중 하나임 '격자무늬 의자'라 함 맥킨토시의 의자 중 극단적으로 변형된 디자인임 면과 사각형, 선의 모티브로 복잡한 도시건물구조 같은 이미지를 형상화 함	재료 및 색상 -곡면모양의 등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의자 -분절된 사각형의 가구형태 -수직선과 수평선이 결합되어 생긴 역삼각형의 격자모양 -사각형의 입체적인 모티브와 조화되어 현대적 패턴의 디자인으로 시도함 -좌판: 반원형 -다리: 반원 판재 형태 크기 1.넓이: 37inch(약 940mm) 2.깊이: 16inch(약420mm) 3.높이: 47inch(약1190mm) 4.좌판높이: 15.5inch(약390mm)
	맥킨토시의 후기 작품 힐하우스 격자무늬 의자와 흡사한 직선의 요소 도입 목재의 사용과 수공예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작품	재료 및 색상 -안쪽으로 경사진 격자 형태의 긴 등 부분이 내려온 의자 격자무늬가 강조 된 안정적인 형태 -좌판: 사각형 -다리: 직각형태 크기 1.넓이: 19.3inch(약 490mm) 2.깊이: 17.8inch(약450mm) 3.높이: 29.5inch(약750mm) 4.좌판높이: 17.8inch(약450mm)

레더 백 의자(Ladder-back Chair)와 월로우 의자(Willow Chair)는 다른 어느 것 보다도 강하게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가구로서 그의 고유의 양식적 특징

과 조화를 이뤄 낸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다.

레더 백 의자는 1903년에 제작되었으며, 직선적인 구조미가 돋보이는 의자로서 형태면에서의 수직적 이미지가 강하고 등받이에는 격자무늬가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등받이의 수평으로 나열된 각재들로 인해 수평이 강조된 수평형 의자로 구분된다.

월로우 의자는 1904년에 제작되었다. 수직과 수평을 복합한 격자무늬의 의자이다. 직선적이며 면이 분절된 이 의자는 일본의 창살 무늬와 매우 흡사한 구조를 하고 있다.

바셋 로크 의자(Basset Lowke Chair)는 1918년에 제작되었으며, 1904년 힐 사이드에서 많이 보이던 직선의 요소를 살린 의자들과 흡사하며, 레더 백 의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이다. 따라서 매우 동양적이고 격조 있으며, 중후한 멋을 느낄 수 있는 가구이다.

결국, “구조가 장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장식을 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의 신념은 그의 작품 속에서 ‘돌출되고 가장 필요한 모양으로 장식하는 선택’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그의 신념은 창의성과 더불어 그의 작품에 잘 반영되어 있다.¹⁷⁾

4.3.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대표적 가구디자인 특성 비교

앞에서 설명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대표적 가구디자인 특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라이트와 맥킨토시의 가구디자인 특성 비교 분석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찰스 레니 맥킨토시
디자인 개요	자연형태에 내재된 법칙과 질서를 추구하면서 실내와 가구사이의 유기적 통합을 이루고자 함	인테리어의 모든 요소들은 ‘총체적 예술’의 창조개념에 입각, 건물과 건물 내부의 내용물들이 한데 어울려 조화시키고자 함
형태	주택용과 사무용 가구를 제작함으로서 장소의 특수성을 심어줌 근대기술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서 인간의 욕구에 부합되는 디자인으로 창조함	가구의 독특한 이미지와 형태를 창조함으로서 조형성을 추구함 기능보다는 구조적, 조형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여 조화시키고자 함
재료 및 색상	기하학적 조형미와 큐비즘의 형태로 발전시키면서 미니멀한 양식의 가구를 디자인 함	합리주의적인 영국식 가구로서 독특한 독창성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구를 디자인 함
	단순한 형태가 많았고, 기하학적인 직선과 곡선을 적절히 사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의자를 디자인 함	기하학적이며 선의 상호작용에 의해 수직적인 구조미가 강조됨 분절된 사각형의 형태
	라이트가 추구하고자했던 동·서양의 유기적 디자인의 특징인 기하학적 형태가 잘 드러남	동양건축의 ‘자연체계’ 개념도입 공간의 해석과 격자무늬를 이용한 직선적이고 생산적인 디자인 고려함
	전통적 자연목(주로 벚나무(cherry)를 사용함) 오피스용 가구엔 금속 프레임에 적갈색 도장 마감 좌판: 폴리에스터 풀 위 적갈색 천 또는 아이보리색을 써옴으로서 자연의 색을 사용함	전통적 자연목(주로 참나무(oak)와 물푸레나무(ash)를 사용함) 위 강한 색상의 도장 마감 좌판: 폐단과 색상이 있는 천(말의 털, 골풀, 실크 등)을 써봄으로써 단조로운 피함

17) 류숙희, Ibid., p.27

라이트의 초기 의자는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무거워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1905년 이후 일본으로 진출하면서 디자인이 많이 세련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구의 구조적인 특징으로서 기하학적 좌우 대칭 구조와 수직적인 구조, 단순하고 등받이가 높은 구조로 표현하였다. 맥킨토시의 의자는 대부분 긴 등받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특징이어서 가구 고유의 기능보다는 공간 속 조형요소로 제작되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의 조화를 위해 의자를 디자인하였다. 일본식 격자 양식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부분에서는 라이트와 맥킨토시의 공통점으로서 그들만의 새로운 양식을 통해 현대적인 표현방법으로 승화시킴으로 직선적인 디자인을 발전시켰다.

재료 및 색상의 경우, 라이트는 벚나무를 주로 사용하였고, 오피스용으로 제작된 가구들에서는 올리브그린(Olive-green), 적갈색(Red-brown) 등이 채색된 금속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가구에 사용된 프레임, 페브릭, 가죽에는 자연의 색이 그대로 사용되어 공간과 조화를 이루었다. 맥킨토시의 의자는 전체적으로 짙은 색상으로 착색된 오크나 물푸레나무의 프레임의 무거운 이미지를 좌판의 쿠션과 색상으로 마감함으로서 세련되고 간결한 이미지로 계획하였고, 좌판에 사용된 소재로는 말의 털, 골풀, 실크, 가죽 등을 사용하여 손수 직접 짜거나 재단하여 접목시켰다. 그는 내구성이 좋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말의 털과 골풀을 사용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아르누보는 건축적으로 가장 창조력이 풍부한 단계를 맞이하는 시기였으며, 존 러스킨(John Ruskin)이 창설하고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가 주도했던 사상에 근거하여 새로운 종류의 재료와 새로운 형태의 장식에 대해 실험하였다. 그것이 결국 디자이너와 작품들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였고, 정화시키는 수단을 제공하였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자연형태에 내재된 법칙과 질서를 추구하면서 자연사이의 유기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수평의 대지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과 수직과 수평의 형태를 가진 가구의 구조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 건축, 가구, 그리고 인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완성하였다.

맥킨토시는 미술과 공예운동의 사상을 배경으로 한 견고한 구조적인 형태와 합리주의적인 영국적 직선형의 가구를 독특한 독창성과 개성이 있는 격자무늬나 수평 수직의 기하학적 구조의 양식으로 창조하였다. 이것은 대륙적 아르누보의 반발과 동양적 문양에 대한 재해석으로 보이며, 글래스고우 예술학교를 통해 온화한 선형장식이

있는 직선적인 형태의 새로운 양식을 디자인함으로서 새로운 대륙의 아르누보 양식을 창조하였다.

라이트와 맥킨토시의 가구는 건물 외부에서 내부공간으로, 더 나아가 그 내부공간에 담기는 오브제로 주제를 옮겨갔고, 그들의 가구들은 독창적인 실내공간을 만들뿐 아니라 특정한 실내공간과 전체적인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목재의 선택과 사용으로 유기적인 사상을 잘 표현하였고, 나무의 특성을 그대로 이해하여 세부적인 장식을 배제하고 기하학에 대한 홍미를 강조하여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형태를 디자인하였다.

일본에 대한 예술적인 관심은 서로의 공통점이었지만, 맥킨토시는 일본의 영향을 충분히 받아 작품에 영감을 주었으나, 라이트는 그가 믿어온 원칙을 더욱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양식을 받아들였다. 그는 기하학적 형태들의 원천은 프뢰벨 패턴의 목적과 본질에 합치되는 사항이며, 노자의 도가사상은 자연의 유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동서양의 철학적 사상을 통합한 것으로 봄으로써 전체로서의 통일을 의미하는 디자인을 창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르누보의 시대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던 라이트와 맥킨토시는 그들의 사상적 배경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구를 디자인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기하학적 아르누보 스타일의 새로운 양식을 창조했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20세기 모던 디자인의 시작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1.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95
2. Donald Hoffmann, Frank Lloyd Wright-Architecture and Nature, Dover Publications, 1986
3. Kevin Nute, Frank Lloyd Wright and Japan,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993
4. Lynton Nobert, 20세기의 미술, 윤난지 역, 예경, 1993
5. Penny Spark, 디자인의 역사:20세기의 디자인 선구자들, 김난령 역, 예경, 2004
6. Robert McCarter, Frank Lloyd Wright, Phaidon, London, 1997
7. The International Design Yearbook, BSS, 1989
8. William Buchanan, Mackintosh's Masterwork 「The Glasgow School of Art」, Richard Drew, 1989
9. 김혜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이상도시론이 반영된 '커뮤니티 시설'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1
10. 류숙희, 맥킨토시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대석사논문, 1995
11. 문은미, 유기적 건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6
12. 배소현, 현대 건축가가 디자인한 가구에 나타난 모더니즘 미학에 대한 연구, 영남대석사논문, 1996
13. 신승기, Frank Lloyd Wright의 건축에 나타난 일본풍의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홍대석사논문, 1999
14. <http://www.cassina.com>
15. <http://www.design-council.org.uk>

[논문접수 : 2010. 09. 18]

[1차 심사 : 2010. 10. 19]

[제재 확정 : 2010. 11. 05]